



# 물방울

발행일 : 2021년 06월 01일  
발행처 : 한국가톨릭스카우트  
발행인 : 홍승권 대건안드레아 신부  
전 화 : 02) 6263-2010  
팩 스 : 02) 6263-2011  
이메일 : kcs@kcs.or.kr  
홈페이지 : cafe.daum.net/kcscouts

B·P경  
어록

모든 사람이 세계 형제여,  
즉 타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먼저 베풀고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과 만족 그리고 이익까지도  
차선으로 돌리는 습관을 갖는다면  
세상은 훨씬 달라질 것이다.  
혹자는 이것이 단지 꿈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구할 가치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꿈꾸고 또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전진하지 못할 것이다.  
(창시자의 방자취 67쪽)

## 예수 성심 성월, 호국 보훈의 달

가톨릭스카우트를 위해 후원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과 지도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예수 성심 성월이며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점점 늘어간다는 소식을 접하며 긴 터널의 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모든 것이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무사히 진정될 때까지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성심은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이고 그 본질은 사랑입니다. 예수 성심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교회의 목자인 사제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으며 성화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가톨릭스카우트의 모든 지도자와 대원들은 사제들이 예수 성심과 같은 사랑으로 사목을 하는 사제들이 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마음은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누구든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한 부모의 마음, 부부 간에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모두가 거룩한 마음입니다. 거기에선 자

신을 생각하는 마음보다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카우트 선서의 하느님과 나라를 위한 마음, 항상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이들은 모두 사랑의 마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심을 본받고 뒤따른 신앙의 선조들을 모신 장소인 성지가 있습니다. 성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선조들이 보여주신 신앙의 모범에 감탄하고 공경을 합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보여준 성심의 사랑을 감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심의 사랑을 본받으며 간직하고 실천할 결심을 할 때 참된 성지 순례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19로 단체 활동은 하지 못하지만, 가족 단위의 성지 순례는 늘었다고 합니다. 스카우트의 정장인 단복을 입고 성지를 찾아 예수 성심의 사랑을 깨닫고 본받는 삶, 그리고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6월이 되면 기억나는 곳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살았습니다. 바로 옆이 동작동 국립묘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6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고, 수많은 가족들이 울며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었고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국립묘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곳곳에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모신 장소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장소를 방문하며 감사한 마음과 함께 본받고자 하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도 바로 스카우트의 정신을 되새기며 예수 성심을 닮는 사람이 되는 길일 것입니다.

예수 성심이시여,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아멘.

2021년 5월 활동과 활동사진



[중앙] 전문과정 종별과정 '평화의 메신저(Mop)' | 5/1(토)~2(일) | 중앙 회관



[연맹] 청소년위원회(3차) | 5/9(일) | ZOOM



[연맹] 제205기 지도자 기본강습 및 지도자훈련 초·중급과정(서울지구) | 5/15(토) ~ 16(일), 5/21(금) ~ 23(일) | 삼송동 야영장



[연맹] 무궁화 · 골드 설명회 | 5/22(토) | 연맹

[연맹] KCS 월례미사(후원자와 지도자를 위한 미사) / 5/26(수) / 연맹, 유튜브

[연맹] 2021년 영리더회, 로버협의회 제1차 회의 | 6/12(토) | ZOOM

[연맹] KCS 월례미사(후원자와 지도자를 위한 미사) | 6/23(수) | 연맹, 유튜브

[연맹] 제2회 임원회의 | 6/23(수) | ZOOM

[연맹] 세계연맹패치취득활동 | 6/26(토) | 온라인

[연맹] 청소년위원회(4차) | 6/27(일) | ZOOM

[연맹] 1차 상반기 표창 안내 | 6월 중 | 연맹

[연맹] 한국스카우트가톨릭연맹 제19기 지도자훈련 상급과정 | 7/3(토) ~ 4(일), 7/8(목) ~ 11(일) | 강화 바다의 별 야영장

[연맹] KCS 월례미사(후원자와 지도자를 위한 미사) | 7/21(수) | 연맹, 유튜브

[연맹] 제3회 정기이사회 | 7/23(금) | ZOOM

[연맹] 제3회 정기이사회 | 7/28(수) | ZOO

※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방역지침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1  
6 ~ 7월  
일정

Apart and Together!

제18회 걸스카우트 e-국제야영 | 2021.8.1. ~ 2021.8.20. | 온라인

"Draw your Dream!"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 2023.8.1. ~ 2023.8.12. | 전라북도 새만금 | <http://www.2023wsjkorea.org>

가톨릭스카우트 후원자와 지도자를 위한 월례미사는 유튜브 검색창에 "가톨릭스카우트"로 접속하여 월례미사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 초·중급 과정 및 지도자 기본강습을 수료하며

교회의 부름으로 2월 16일 가톨릭 스카우트 서울지구연합회 지도신부로 부임되었다. 사실 스카우트는 나의 삶에서 익숙한 것이 아니다. 학창시절에 몇몇 친구들이 멋진 제복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본 것이 다였기에 스카우트에 대해서 어떠한 경험도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지도신부를 맡게 된 상황이었다.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익숙했던 땅에서 떠나 새로운 여정을 하였듯이 나 역시 미지의 영역이었던 이곳으로 약간의 걱정과 설렘을 동시에 가지며 부임하게 되었다.

걱정과 설렘 중 무엇이 더욱 크게 자라게 될까를 생각하며 몇 주에 걸쳐 대장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삼송리 야영장과 회관 사무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어느덧 걱정은 사라지고 설렘만 가득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봄을 맞은 야영장은 하루하루 자신의 옷을 입으며 향기를 더해가고 있었고 그러던 중 어느덧 초·중급 훈련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를 맞이했다. 코로나로 인해 어지러운 시점이었기에 국장님들과 대장님들이 한마음이 되어 조심스럽게 훈련을 준비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의 노고와 지혜로 마련될 수 있었던 이번 훈련에 지도신부이자 수강자로 참석했다.

입소 날 반원들과 첫 대면을 하였고 어색한 기운이 흘렀다. 그리고 첫 하루는 비가 아주 많이 왔다. 하지만 함께 교육을 받으면서 어색함은 어느덧 사라졌고, 쏟아지는 비는 더 이상 신경거리가 되지 못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반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반원들까지 서로가 서로를 챙겨가며 교육에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훈련이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우리 사이에 어떤 끈끈함이 더욱 짙어져 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이것이 바로 스카우트의 매력이자 목적일 것이다.

한편 훈련 프로그램들을 임하다보니 주일학교 캠프의 원조를 경험한 느낌이었다. 필자가 주일학교 학생이었을 때부터 캠프를 가던 주간추적 프로그램, 야간추적 프로그램, 물놀이, 캠프파이어가 캠프의 모든 것이었는데 이것은 필자가 사제가 되어서도 여전하였다. 많은 본당들에서는 스카우트 활동이 놀이가 되어서 스며들어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일정대로의 교육을 받으며 어느덧 마지막 밤 캠프파이어와 선서식 때가 되었다. 이 시간은 환희와 경건함을 모두 체험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캠프파이어 시간에 우리는 반별로 준비한 장기로 서로에게 기쁨을 줄 수 있었고, 수강생들을 위해 광대가 되어주고 뱃노래를 불러주신 대장님들의 모습에서 수강생들을 향한 진심어린 마음을 볼 수 있었다.

선서식은 사제서품식과 매우 흡사했기 때문에 더욱 경건하게 다가왔다. 사제가 부르심을 받을 때 “네! 여기 있습니다.”라고 외치듯이 수강생들도 각자의 호명에 대답했고, 우리는 그렇게 스카우트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총 3박 5일로 진행된 이번 훈련을 통해 무엇보다 일치됨이 주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함께한 수강생들 대부분이 상급 훈련도 함께 받고 싶어 했는데 내가 느꼈듯이 각자가 일치됨의 기쁨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제 205기 초·중급 과정 및 지도자 기본강습을 준비해주신 모든 대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로운 대장으로 거듭난 205기 대장님들이 스카우트를 통해 더욱 건강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 한국가톨릭스카우트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 ▶ 정기후원 신청방법
  - \* 정기후원 신청은 담당자(070-4366-4870)에게 연락하시면 후원용지를 보내드립니다.
- ▶ 후원금 납부 계좌
  - \* 한국스카우트가톨릭연맹 : 우리은행 1005-702-723157
  - \* 한국걸스카우트가톨릭연맹 : 우리은행 1005-002-641093
- ▶ 기부금영수증을 신청하시면 매년 1월 중순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담당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 ▶ 물방울 소식지를 받아보실 주소가 변경되신 분은 담당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 후원자 명단

작고 정성스러운 물방울들이 한 방울 한 방울 흘러 들어올 때마다 온 기쁨과 감사를 느낍니다.  
이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가톨릭 스카우트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물방울후원

(단위 : 천원)

스카우트				걸스카우트			
고병국 5	박명심 5	이금주 10	정태원 10	계도희 10	김재정 5	염현숙 5	임형태 10
구연철 5	박선우 10	이미용 10	조계옥 5	고병국 5	김진숙 10	오은영 10	장희선 15
구형수 20	박신영 5	이봉용 10	조철성 20	구연철 5	김효순 5	유희영 5	정성환 5
권민경 5	박영식 5	이상호 10	조해진 5	권민경 5	남희라 5	윤란규 20	정 철 5
김경화 5	박종혁 5	이영석 20	최병일 10	김나영 5	노경애 50	윤혜영 20	제갈능 10
김기범 10	배순구 5	이영애 5	한방희 5	김동현 10	노금채 5	이루지 30	조해진 10
김동현 10	배인식 20	이요안 10	함영주 10	김미옥 10	노양호 10	이묘숙 20	채안나 10
김명희 5	배향숙 5	이제연 5	허남식 10	김복자 10	박상용 5	이미용 10	최병일 10
김서윤 5	송철규 10	이철우 20	허인정 10	김서윤 5	박상희 10	이봉용 10	최화심 5
김영길 10	신동균 20	이항복 10	홍병무 5	김성기 5	박원정 10	이영숙 10	편희숙 10
김영찬 10	안화정 5	이항섭 10	황화선 10	김영옥 5	박재현 10	이영애 5	허운정 5
김용목 30	양홍숙 5	임성택 5	Fr.강현철 10	김영찬 10	박준영 10	이은주 10	홍기순 10
김용배 50	양홍식 10	임주섭 10	Fr.김시용 5	김영희 10	박준서 10	이진숙 50	홍성욱 10
김재정 5	염수경 5	장희선 15	Fr.박종인 5	김옥자 50	박종혁 5	이현숙 10	홍아숙 10
김지현 5	오명애 5	전양현 10	Fr.이병훈 10	김용익 50	서보형 5	임성택 5	Fr.강현철 10
김현수 5	오승규 10	전채식 5	Fr.이재학 10	김윤정 10	송재연 5	임정희 10	Fr.김시용 5
남기호 10	오은형 10	정성환 5	Fr.홍승권 50	김이순 5	안미형 10	임주호 10	Fr.박종인 5
노규보 5	유소형 5	정치형 10	대한매물령 성가대 5	김인순 5	안학정 5	임지숙 10	Fr.홍승권 50
박광배 50	윤창현 20						

● 총 74명 ▶ 총액 790,000원 ●      ● 총 74명 ▶ 총액 850,000 ●

여러분의 후원을 은총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봉헌됩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스카우트 74명, 걸스카우트 74명의 회원님이 총 1,64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단 한 구좌라도 후원해주신 분들의 모든 기록은 한국가톨릭스카우트에 영원히 기록됩니다.

2021년부터 가톨릭스카우트 후원자와 지도자를 위한 월례미사가 매월 세 번째 수요일 오후 4시에 연맹 회의실에서 봉헌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